

#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 개혁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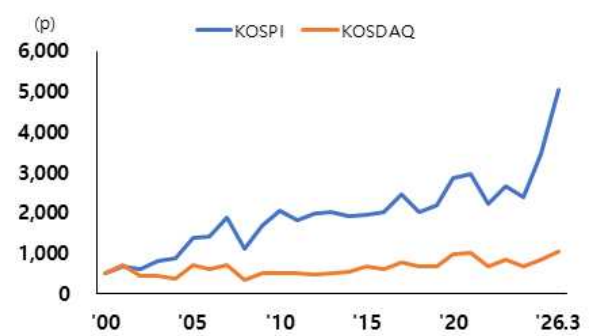
작성자 : 박재진 과장 (bk42452@ibk.co.kr / 02-729-6875)

◆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는 상장폐지 방안을 발표,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금융기관 및 관련 기업 시사점 도출

## ■ (배경)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상장폐지 제도를 재설계

- **(KOSPI)** 대형주(반도체, 방산 등) 중심의 수출 호조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가 맞물리며 코스피는 주요 증시 대비 차별화된 성과\*를 창출하는 중
    - \* 주요 증시 수익률 현황('25.3. → '26.3) : (KOSPI) 2,481.12 → 5,052.46(+103.6%), (NASDAQ) 17,299.29 → 21,590.63(+24.8%), (S&P 500) 5,611.85 → 6,528.52(+16.3%), (Nikkei 225) 35,617.56 → 51,063.72(+43.4%)
  - **(KOSDAQ)** 반면, 코스닥은 상장기업수·시총 등은 커졌으나 지수 성장은 정체\*,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   - \* KOSDAQ 지수 추이 : 1,205.20('96) → 525.80('00) → 510.69('10) → 968.42('20) → 1,052.39('26.3)
- ⇒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본 상장폐지 제도 개혁을 추진, 부실기업을 신속·엄중하게 퇴출하는 다산다사(多産多死)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

KOSPI-KOSDAQ 주가 추이



자료 : 한국거래소

KOSPI-KOSDAQ 시장별 특징

구분('26.3)	KOSPI	KOSDAQ
시장성격	재무실적 우수 대형기업 위주	기술력·성장성이 높은 기업 위주
상장기업 수	809	1,722
전체 시총	4,141조원	570조원
일평균 거래대금	30.1조원	13.7조원

자료 : 연합뉴스

## ■ (주요 내용) ①시가총액, ②동전주, ③자본잠식, ④공시위반 관련 요건 강화·신설

- ① **(시가총액 요건 조기 시행)** 상장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빠르게 추진하고,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기준\*을 강화
  - \*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

시가총액 요건 조기 개정 계획

	'26.1월	'26.7월	'27.1월	'28.1월
기존 계획	40 → 150억원(기시행)	-	150 → 200억원	200 → 300억원
조기 시행	-	150 → 200억원	200 → 300억원	-

- ② **(동전주 퇴출)**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작은 동전주(주가 1,000원 미만)는 주가조작의 표적이 되기 쉬워,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\*을 신설
  - \* 30거래일 연속 1,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,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,000원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 최종 상장폐지되며 우회방지를 위해 액면병합도 감시 예정
- ③ **(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)** 완전자본잠식 요건이 기존 연도말 기준에서 반기 기준으로 확대되며, 사업 연속성 등의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 예정
- ④ **(공시위반 요건 강화)** 공시위반 기준을 '최근 1년간 공시별점 15점 누적'에서 '10점 누적'으로 하향조정하고, 중대·고의적 공시위반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

**상장폐지 제도 개혁 주요 내용**

	KOSDAQ	KOSPI
①시가총액기준 조기 시행	['26.7월] 150 → 200억원 ['27.1월] 200 → 300억원	['26.7월] 200 → 300억원 ['27.1월] 300 → 500억원
②동전주 요건 신설	신설	좌동
③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	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	좌동
④공시위반 요건 강화	누적별점 15점 → 10점 중대·고의 위반 추가	좌동

■ **(영향) 강화된 개혁안 반영시 코스닥 기업 최대 220여개사가 영향권에 편입**

- 상장폐지 예상 기업수는 당초 예상된 50개사에서 최대 220여개사로 4배 이상 증가 예정(한국거래소 단순 추산, '26.2월 기준)

**상장폐지 요건 강화 전·후 시뮬레이션 결과**

<b>형식요건</b> (요건 해당시 즉시 상폐)	기존 예상 건수	20여개 내외
	시가총액기준 조기화('26년 中)	+ 30여개
	동전주 요건 신설	+ 18 ~ 135개(액면병합 여부에 따라 차이)
<b>실질심사 요건</b> (심사 후 상폐)	기존 예상 건수	30개 내외
	완전자본잠식 요건	+ 2개사
	공시위반 요건	+ 3개사
<b>합 계</b>		<b>100 ~ 220여개사</b>

자료 : 한국거래소

■ **(시사점)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비해 금융기관은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, 관련 기업들은 종합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**

- **(리스크 점검)** 금융권은 기업 심사시 강화된 요건(시총 200억원, 주가 1,000원 등)을 반영하고, 상장폐지 징후 지표(공시 별점, 동전주 진입 등)를 실시간 연계해 조기경보 시스템 정교화
- **(대응전략 구축)** 코스닥 기업들은 시장 평가(주가, 시총 등)가 중요해진 만큼 상장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자본 확충지배구조 개선·투자 유치 등 종합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